

“청소년도 시민… 사회공동체에 당당히 한몫합니다”

[함께하는 교육] 교육 정보
시민교육 박람회 현장

여기는 뭘 소개하는 곳인가요?”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시민교육을 했던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3회 시민교육 박람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현장. 온곡중학교의 기획전시 부스를 방문한 중년 남성이 질문하자 3학년 심대섭군이 친절하게 응대한다.

“A Better World Is Possible(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사회교과에서의 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펼침막 아래 차린

부스의 세 벽에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할까?’, ‘영화 식코(Sicko)를 통해 본 국가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등 따끈따끈한 사회적 의제들과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글 등이 소개돼 있었다. 온곡중 3학년 10개 반 학생들이 김선옥 교사의 사회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이다.

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선정해 사례 발표와 전시 등을 하는 시민교육 박람회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시민교육 관련자들이 정보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다. 이 박람회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와 전시 및 시상, 기획 전시,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도 시민… 사회공동체에 당당히 한몫합니다”

올해는 1차 심사에서 선발된 23개팀과 기획 전시 두팀을 합쳐 총 25개팀이 참여했다. 온곡중은 기획 전시 두팀 가운데 한 팀이었다.

역사교사인 김 교사는 올해 사회 과목을 맡게 됐다. 교과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은 했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경제 부분은 “너희들이 이 체제에 적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르치는 교과서 같았다.

‘시민교육’을 문패로 대안적인 교과서를 만들어봤다. 3학년 후반에 배우는 ‘민주주의’를 맨 처음으로 가져왔다.

‘자본주의’는 ‘공존을 위한 경제’라는 말로 바꿨다. ‘국가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뎀 영화 <식코>의 편집본을 함께 봤다. 수업의 뼈대는 대화, 토론, 글쓰기 등으로 이뤄졌다.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술을 썼는데 ‘우리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머리 빠지게 고생하지 말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멋지게 해보자’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활동이 진로교육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웃음)”

“청소년도 시민… 사회공동체에 당당히 한몫합니다”

25개팀 참여해 사례 발표·전시
대안교과서 만들며 토론하니
미래 설계에 진로교육이 저절로
마을 문화 담는 ‘팔로잉’ 프로젝트
청소년과 주민 하나로 묶어줘

학생들은 지난 7월, 방학 과제로 참여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녹색연합 등 총 16개 시민단체 중 한 곳을 방문해 보고서도 제출했다. 평화박물관을 다녀온 3학년 이성윤군은 “전쟁, 평화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3학년 이동현군은 “토론식 수업이라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키울 수 있었다”고 했다.

‘A Better World Is Possible’은 19세기,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 때 피켓에 적혀 있던 말이다. 김 교사는 “우연히 당시 사진을 본 뒤로 이 말이 나의 모토가 됐다”며 “아이들에게 ‘네가 행동하고 바뀔 때’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친구와 처음으로 막노동해서 배 터지게 고기 먹었던 옥돌…”

발표와 전시 분야 11팀 가운데 큰 주목을 받았던 경기도 군포시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인생나자작업장의 ‘문화로 마을을 ‘팔로잉’하라!’(이하 ‘팔로잉’) 부스 한쪽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어 있었다. 군포시 당동에 있는 ‘옥돌돼지갈비’ 건물을 담은 사진이었다.

“청소년도 시민… 사회공동체에 당당히 한몫합니다”

군포시 당동에 있는 ‘옥돌돼지갈비’ 건물을 담은 사진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해보는 ‘동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인생나자작업장 김지수 이사의 설명이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한때 이곳에 사는 청소년들의 꿈은 ‘돈을 벌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살고 싶은 곳’, ‘곳곳에 추억과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2010년도부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 모델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결과다.

‘팔로잉’ 프로젝트는 마을의 ‘달인’으로 불릴 만한 인물을 발굴 해오는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장인학교’, 내가 사는 마을의 간판을 찾아오는 ‘특징 있는 간판을 찍어라!’,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인물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마을 고수를 찾아라’ 등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 떡볶이를 잘 만드는 동네 아주머니, 10년 이상 시민단체에서 근무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마을문화 만들기에 동참했다.

청소년들 덕분에 동네에는 활기가 생겼다. 10월에 여는 마을잔치 때는 이 청소년들과 마을주민 등이 어우러진다. 김 이사는 “아이들도 시민이다. 내가 사는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도록 만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활동하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대신4동 우리동네 역사알기, 우리동네 역사·문화 탐방 실시

부산 서구 서대신4동 우리동네 역사알기(회장 임병율)는
지난 9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마을 발전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바로 알자는
의미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서구 자원봉사 센터,
(주)온더무브 전차카페, 주민 등 20여 명이 구덕운동장에서
꽃마을까지 탐방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의미 있는
장소들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달서구 우리 마을 교육 나눔 본동추진위, 청소년 마을 운영단 발대식



2020.10.20.

달서구 우리 마을 교육 나눔 본동추진위원회에서 지난 17일 청소년 마을 운영단 발대식을 했다.

청소년 마을 운영단은 지역 내 학생들 관점에서 교육 기획과 지역에 관한 관심을 두고 봉사활동이나 진로 활동 기획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송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수현 회장과 대구농업마이스트 고등학교 2학년 조예진 서기로 해서 12명의 학생이 발대식 후 지역 내 주요 거리를 돌면서 주민과 인근 가게를 방문해 손 세정 물티슈를 나누어주고 인근 주요 거리를 돌면서 “마스크를 생활화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원장은 “학생들의 적극적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동 행정복지센터 최경락 동장은 “학생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영상공모전' 수상

서울시장상 수상



2020.10.20.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마을 청소년들이 제작한 UCC 영상 <이룸이의 방학숙제>가 지난 14일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UCC 영상공모전'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문화일보가 주최하고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이룸이의 방학숙제>는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마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했다.

내용은 서귀포시 월평동에 거주하는 김이룸 학생이 '우리마을 도시재생 알아보기'라는 방학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 녹아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찾아다니다 어렵게만 느껴진 도시 재생과 친해진다는 이야기다.

영상은 △보존된 초가집과 돌담길 등 역사 자원 △만감류를 활용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 △아름다운 월평 포구와 올레길 7코스 등이 담겼으며, 서귀포시 월평마을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 유튜브(https://youtu.be/Zep_Q4VSjnA)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월평도시재생센터는 영상 제작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제작을 맡은 청소년들에게 영상 기획과 촬영 등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원했다.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영상공모전' 수상 서울시장상 수상



2020.10.20.

영상 주인공인 김이룸(중문중 1) 학생은 “평소 영상 제작에 흥미가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며 촬영을 해 즐거웠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알게 돼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승협 월평도시재생센터 소통홍보팀장은 “이번 수상은 월평마을의 미래인 지역 아이들이 주체가 돼 영상을 만든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센터에서도 마을주민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시재생사업을 친숙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CC 영상공모전이 진행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운영됐다. 월평마을은 제주 도시재생센터들과 함께 사업 활동 진행 상황 등을 박람회를 통해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AI 공모전



2020.10.30.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다가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보 표기 오류를 보고 화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모전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AI 공모전입니다.

공모주제는 해외 온라인상 대한민국 관련 정보 표기 오류 검색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 및 앱, 그리고 웹 개발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고 서류 결과는 11월 12일에 개별 통보로 발표됩니다. 개발자, 학생 등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팀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참가는 불가능하고 팀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주의해주세요.

접수는 구글 폼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정보, 300자 내외의 지원동기, 개발계획, 그리고 팀원과 팀의 개발역량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최우수상 300만 원 및 총상금 900만 원의 공모전입니다. 약 2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SF 공상 영화에나 나올법한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인공지능도 우리 삶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왜곡된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공모전으로 유용한 알고리즘이나 앱이 개발 되어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세계화로 한 발 뻗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공모전 대외활동 정보는 올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회 안중근장군 평화정신실천 전국웅변대회 온라인 콘테스트 개최

안중근 장군 하얼빈 의거 111주년 기념을 맞아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에서 안중근 장군 평화정신실천을 위해 제14회 안중근장군 평화정신실천 전국웅변대회 온라인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비대면과 대면 2방식으로 온라인 콘테스트로 진행했다.

안중근 장군 111년 국민화합평화대행진 웅변대회는 111년 전 일본의 한국침략을 막고 일본의 대륙침략 야욕을 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안중근 장군의 민족사랑 정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든 행사다. 아울러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 '보통 사람들의 안중근 운동'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웅변대회에는 대한민국 연사뿐만 아니라 세계 연사들도 참여해, 한국어의 세계화 보급에 이바지하는 의의가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다. 세계 연사들 포함해 본선 진출 연사는 35명 출전하여 전체대상 대한민국 국회의장 상은 세마초등학교 3학년 오미송 학생이 영광의 전체대상을 수상했다.

오미송 학생은 '마음의 무기'라는 주제로 안중근 장군의 마음의 세긴 평화와 애국의 대한 정신적 무기야 말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열변을 했다.

제14회 안중근장군 평화정신실천 전국웅변대회 온라인 콘테스트 개최



오미송 학생은 웅변을 7살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웅변을 배우고 있고, 장래꿈이 작가라 말과 글을 배워서 이번 대회 출전 원고도 본인이 작성하여 연습해서 출전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안중근 민족 사랑과 평화정신을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며, 대한민국 미래에 리더 양성을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한편, 제14회 안중근 장군 평화정신실천 전국웅변대회 행사는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상해위원,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웅변중앙회, 대한민국 최고연설선발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다.

3·15의거 제60주년 청소년 영상 UCC 공모전 시상식



2020.10.25.

3·15의거기념사업회(회장 김장희)는 지난 24일 오후 3·15 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15의거 60주년을 기념하는 ‘제12회 3·15 청소년 영상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3·15의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3·15의거를 비롯한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3·15의거 역사 인식과 ‘자유·민주·정의’의 3·15의거 정신계승,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경남환경미디어협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처,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은 지역 청소년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창원 인디밴드 ‘옥토’의 축하 공연과 ▲3·15의거 홍보영상 ▲당선작 상영 ▲시상 등 다양한 볼거리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의 결과 ‘범수기’팀(강호주 외 6명)의 ‘잊지않겠습니다’가 영예의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장상 및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3·15의거 제60주년 청소년 영상 UCC 공모전 시상식



2020.10.25.

대상을 수상한 강호주 대표학생은 “수상 목적보다 3·15의거를 알리기 위해 작품을 제작했다”며 “3·15의거가 정말 중요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명곡여중(정다영 외 4명)’의 ‘2020년에서 1960년의 3월을 말하다’, ‘창원대암고(조수빈)’의 ‘60년 전 그때의 이야기’가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상 4팀, 장려상 8팀 등 총 15팀에게 상장과 총상금 470만원이 시상됐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3·15의거 유적지를 답사하고 3.15의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품 제작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3·15의거의 의미를 기억하는 교육이 되었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민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앵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 체불이나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충남교육청이 웹드라마 형식으로 청소년 노동교육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뜨겁다고 하네요. 충남교육청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웹드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한 청수고 3학년 장지원 학생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이런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배경과 의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도중 학생들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노동법에 대해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을 주제로 2편을 제작했고, 2020년 '세상은 넓고 배달은 많다.' '알바도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다시 2편을 제작하여 총 4편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웹드라마를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USB에 저장하여 도내 중, 고등학교에 모두 배부하였고,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탑재하였습니다.

2. 학생으로서 바쁠 텐데도 웹드라마 제작 참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네, 연극부 담당 선생님이시면서 실제로 교사 연극단이신 국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작년 충남교육청 청소년 노동 관련 웹드라마를 보여 주셨어요. 올해 또 제작을 하게 되어 오디션이 있다고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시길래 번쩍 손을 들어 지원했고, 덜컥 합격해 생애 첫 웹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텐요. 주변 친구들도 알바 많이 하고 있나요? 장지원 학생도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는 건가요?

네,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리고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기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맘껏 먹는거죠.

저도 중학교때 뷔페에서 가끔씩 알바를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땀 반년 정도 알바를 했어요. 힘들어 잠시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4. 이렇게 청소년 노동 시장이 커지는 만큼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례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우리교육청에서 도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으로 조사해 봤는데요. 고등학생은 19.1%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기준법에는 만15세 이상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중학생도 4.5%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은 특별히 보호의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인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 실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웹드라마처럼 그야말로 악덕 사장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의 경험은 알바가 끝날 때 사장님 마음에 안드는 게 있으면 시급에서 천원씩 깎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루 반나절을 일했는데 물건 위치나 작은 쓰레기 하나로 시급이 천원씩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악덕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6. 청소년들이 직접 겪었던 피해가 웹드라마 주제가 됐을 텐데요. 어떤 사례들을 다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태조사 결과 노동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 1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2위는 임금체불이었고요. 3위가 근무시간 연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지원이 학생이 얘기한 시급을 깎는 사업주의 사례 등이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작한 웹드라마 2편의 주제가 인권침해 사례 1, 2위인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이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노동 시장이 넓어지면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아르바이트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와 감정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들을 주제로 한 '세상은 넓고 배달은 많다' 라는 드라마와 '알바도 사람이다' 라는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 웹드라마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은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이걸 연기인 줄 알면서도 이걸 진짜 너무한다~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웹드라마에서 갑질을 당하는 알바생 역할을 맡았어요. 사장님으로 나오신 선생님이 저한테 성질내고 짜증내시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진짜로 악덕 사장님을 만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어요. 소리가 많이 지르시고 인상도 팍팍 쓰셔서 정말로 갑질이 이런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8.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알바를 하면서 손님에게 갑질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할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갑질하는 손님 역할을 맡으신 선생님께서 연기 하실 때 저를 보면서 위아래로 훑으시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술을 따르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기분이 진짜로 나쁘더라고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저 눈빛과 말뿐으로도 충분히 갑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또 선생님께서 애드리브로 안경을 내리시며 쳐다보시는데 연기에 몰두하신 덕분에 저도 실제 상황같이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교육감님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 절 구하러 와주셨어요. 이 장면이 촬영을 하면서 가장 감정이 몰입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들이 직접 촬영은 물론 대본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갑질을 당하는 학생을 구하러 깜짝 출연 하셨는데요, 연기자의 길로 들어설까 하는 고민도 잠깐 하셨다고 하시네요.

9. 중요한 건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잘 알아두는 건데요. 실제로 피해 사례를 확인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중학생 3학년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대면 뿐 아니라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상담활동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로 고문노무사 8분을 위촉하여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교육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나요? 웹드라마에 대한 친구들 반응은 어떤지?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본다면 틈틈이 나오는 깨알 팁들이 수많은 알바생들에게 꿀팁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 웹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연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같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 웹드라마를 보면서 저처럼 알게 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리더니 연기 잘 봤다고 덕분에 꿀팁 얻었다면서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걸 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1. 과장님,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텐데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시작할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시급을 많이 주는 곳을 택하기 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침해 받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여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겠고, 아르바이트의 시작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주제로 제작된 웹드라마 1편을 보면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수첩이나 휴대폰 등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장치나 근로시간 준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임하는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웹드라마를 한 번씩 보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12.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아르바이트 전 여러 준비를 하였더라도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한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포스터 뿐만 아니라 L자 클리어 파일을 배부하였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전문 상담사와 고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노동법률 상담 뿐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 드릴 것입니다.

13. 웹드라마에 직접 참여한 학생으로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이런 점은 주의해라~ 조언을 해준다면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는 참지 말고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배달 알바 시작해야합니다. 그리고 헬멧 착용 등 통해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4. 앞으로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점차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중학생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속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노동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노동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도 계속 제작 할 예정입니다.

15. 내년 웹드라마 제작 계획도 궁금합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상황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환경 상황에 맞는 주제 선택할 것이구요. 현장 밀착형 웹드라마 될 수 있도록 제작 지원할 예정입니다.

16. 청소년으로서 어떤 주제 다뤘으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악덕 사장님만 얘기한 것 같아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좋은 사장님 이야기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도 이 웹드라마를 통해 알아가는 것들이 많았던 만큼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악덕
사장님이나 갑질하는 손님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알바생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 인권에 대해 알아가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열심히 땀 흘려 일 한 만큼 제대로 휴게시간도 가지고,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는 똑똑한 청소년 알바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을 짊어줘야 할 미래의 노동자입니다.
학업을 하면서 노동현장에 첫 발을 디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보람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인권교육과 보호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웹드라마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잘 배워서,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양시, 전 국민 대상 '2020 인권 작품 공모전' 개최

경기 고양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2020 고양 인권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인권문제 뿐 아니라 일상 속 드러나지 않은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누구에게나 일상이 된 코로나19 방역수칙처럼 인권 또한 시민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로 정했다.

공모전은 인권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된다. 공모는 △스토리(시·에세이·영상물 등) △포스터(그림·사진 등) △슬로건 등 3개 분야이며, 아동·청소년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토리·포스터 분야는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를 주제로 일상 속 인권침해 혹은 인권증진 사례, 혐오표현 문제, 내가 겪은 차별이야기와 극복방안 등을 에세이·그림 등의 형식으로 자유로이 담아내면 된다. 슬로건 분야는 인권도시 고양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수상작은 향후 고양시 인권행정 홍보에 활용된다. 심사를 거쳐 총 34팀에게 상장 및 4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 작품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인권문화제 및 영화제 등에 전시된다.

사람 품고 마음 잇는 '사천인권영화제' 내달 18일 개막



2020.10.20.

장애인·노인·여성 등 '인권' 주제 10작품 상영
특별전시회·포토존·감독과의 대화 등 행사 '풍성'

사천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 주최하는 '제4회 사천인권영화제'가 오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롯데시네마 사천점에서 열린다.

사천인권영화제는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감수성을 확산시켜 차별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번 영화제는 '사람을 품다,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동, 이주민 등 외면받고 소외된 인권과 관련된 영화 10편을 만나볼 수 있다.

영화제 본 행사 전인 11월 12일에는 특별전이 열린다. 특별전에서는 사천시니어클럽 어르신 50명을 초청해 여성 노인의 삶과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 <69세>를 상영한다. 사천인권영화제 첫날인 11월 18일 저녁 7시에는 개막선언과 함께 사천인권영화제 소개가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영화제 준비과정에서 열렸던 '사천인권영화제 슬로건 공모전'과 '사천인권영화제 손글씨 공모전'의 시상식도 열릴 계획이다. 이어 개막작으로 미미 레더 감독의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 상영된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은 미국 대법관 출신 '긴즈버그'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이 작품은 남녀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용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사람 품고 마음 잇는 '사천인권영화제' 내달 18일 개막



2020.10.20.

영화제 둘째 날인 19일에는 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토레다노 감독의 <언터처블: 1%의 우정>,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블레이크>, 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와츠 감독의 <사마에게>가 상영된다. 20일에는 정승오 감독의 <이장>, 이옥섭 감독의 <메기>, 김재한 감독의 <안녕, 투이>가 상영된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이 로치 감독의 <밤샬: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임선애 감독의 <69세>가 상영된다. 폐막작으로는 증국상 감독의 <소년시절의 너>가 상영된다. <소년시절의 너>는 시험만 잘 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기댈 곳 없이 세상에 내몰린 우등생 소녀 '첸니엔'과 양아치 소년 '베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인권영화제에서는 감독과의 대화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20일 오후 7시에는 <안녕, 투이>의 김재한 감독, 21일 오후 2시에는 <69세>의 임선애 감독이 사천을 찾는다. 감독과의 대화는 영화 상영 이후 감독과 관객들이 '오픈채팅' 등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천인권영화제의 딸림 행사로는 영화제 기간 동안 롯데시네마 사천점에서 진행되는 인권 관련 특별전시회가 있다. 11월 12일 특별전 날에는 노인 인권과 관련된 전시를, 18일부터 21일까지는 포토존 체험과 함께 다양한 인권에 대한 전시가 진행된다.

사람 품고 마음 잇는 '사천인권영화제' 내달 18일 개막



2020.10.20.

또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문화공간 담다에서 진행하는 '손글씨 공모전 캘리그래피 전시회'도 볼거리다. 영화제 참여 소감을 작성하는 참여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사천인권영화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진행된다. 또한 '좌석 거리두기'를 위해 영화 1편 당 선착순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천인권영화제의 영화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에 관람 신청은 필수다. 사천인권영화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천인권영화제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사천YWCA 홈페이지에서 네이버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서은경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후원으로 사천인권영화제가 4회째를 맞을 수 있었다"며 "더 커진 규모로 찾아오게 된 사천인권영화제에서 많은 분들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만큼 좋은 영화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